

보도시점 2025. 5. 20.(화) 14:00 (2025. 5. 21.(수) 조간)

알고 싶은 직무, 만나고 싶은 기업 직접 경험해 보세요!

-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 개최(5.20.), 청년 5.8만명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20일(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직 위주 채용 경향 속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2023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2만 8천명, 2024년 5만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올해는 5만 8천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 기업, 그리고 운영기관이 그간 만들어 온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여정과 향후 계획을 함께 나누었다. 작년에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은 일경험 운영기관 5개소(진천상공회의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산학융합원, 씨엔씨레볼루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일경험 제공 기업 4개소(삼성전자,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카카오, 코멘토)는 성과와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청년들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개된 일경험 참여 기업 4개소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23년~)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희망디딤돌’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 청년은 일경험 후 관계사·협력사 채용 추천, 지속적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기업인 코멘토의 경우, ‘드림버스컴퍼니’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23년~). 학점관리,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직 단념 청년(NEET) 특화 트랙도 운영한다.

올해 신규 참여한 카카오의 경우, 일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한다. 비전공자도 직무교육, 팀프로젝트 및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유일한 산업안전 분야 프로그램인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도 현대자동차에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례 기반 학습, 잡코칭 등을 통한 일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넥센타이어를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남규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구현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 참여했다”라며, “넥센타이어 생산 과정 견학, 수석연구원님의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타이어를 디자인해보며 실무 역량을 쌓고 디자이너로서의 철학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정부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를 늘려 5만 8천 명의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여러분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경험’ 누리집 (yw.work24.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붙임1.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 행사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붙임3. '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

붙임4. '25년 일경험 프로그램 대표 사례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김윤지 (044-202-7458)



□ 행사 목적

-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부, 청년, 기업 및 운영기관 간 소통 기회 마련

□ 행사 계획

- (일시) '25. 5. 20.(화) 14:00~
- (장소)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그랜드볼룸)
- (참석자) 고용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 일경험 참여 청년·기업 및 운영기관 등 30여 명
- 행사 내용
 - (시상) 우수 운영기관 시상(5개소)
 - (발표) 참여 기업 프로그램 발표(4개소)
 - (토크콘서트) 참여자 전원

〈 세부 일정 〉

* 행사 전체공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2	2'	· 개회	사회자
14:02~14:05	3'	· 인사말씀	차관
14:05~14:10	5'	· 우수 운영기관 시상	차관, 운영기관
14:10~14:25	15'	· 우수기업 프로그램 발표 - 자립준비청년, 메타버스 일경험	삼성전자, 코멘토
14:25~14:40	15'	· 신규기업 프로그램 발표 - AI, 산업안전 분야 일경험	카카오, 산업안전상생재단 (현대자동차)
14:40~15:00	20'	· 참여자 토크콘서트 - 참여자 소감, 질의, 건의사항 등 나눔	사회자, 전원
15:00~15:05	5'	·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전원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신
청년, 기업, 운영기관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인턴 뽑는데도 인턴 경력을 요구해요” 라던가,
“다들 경력직만 뽑는데 그 경력은 어디서 쌓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민·관이 협업하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기업을 비롯한
5천 개에 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시행 첫해에는 2만 8천명,
작년에는 5만명의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더 늘려
5만 8천명의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더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어
기대가 큼니다.

사업 첫해부터 함께 해주신
‘삼성전자’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시고,

‘코멘토’에서는 학점 관리,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유연하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합니다.

올해 새롭게 사업에 참여해주신
‘카카오’의 경우 일정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을,
‘현대자동차’의 경우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일정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실 예정으로
한층 더 다채롭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험에 참여해주신 청년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참여 기업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일정험 선배로서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께서
생생한 참여 후기를 전해주시고,
일정험 시작을 앞둔 청년분들은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턴형 및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운영기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원서를 내기만 해도 연락이 왔던’ 예전과 달리
‘서류 합격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채용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각자의 잠재된 역량을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여러분께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실질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또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사업목적

➔ **수사·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3년~)

지원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유형

➔ **아래 4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5일 내외
수행 방식	-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청년 멘토 등 지정·운영	-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에 방문하여 현직자와의 대화, 직무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참여 청년, 기업, 운영기관에게는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

➔ **’25년 5.8만명** 지원 예정

*’23년 2.8만명 지원, ’24년 5만명 지원

현장 목소리

“인턴 채용에도 인턴 경력을 요구해 막막한데, 조건없이 참여해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경험과 이론을 결합하고 전문가(멘토)와 네트워킹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일경험 참여 후 자사 채용에 대한 청년 관심도가 7배 증가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잠재 지원자들의 성향,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신청방법

➔ **‘청년일경험’ 누리집**

(yw.work24.go.kr)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 직무, 일정, 지역 등 검색 및 신청 가능

홈페이지



상담접수

(인턴형/프로젝트형/ESG형)



※ 기업탐방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2025년 일경험 프로그램 대표 사례

삼성전자 「삼성희망디딤돌」

- ➔ **직무** 전기, SW, 공조, 광고, 중장비, 제과, 애견, 네일 등
- ➔ **주요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진로탐색,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 단계별 지원
- ➔ **기간** '25.5~11월 중
- ➔ **인원** 227명
- ➔ **공동 운영기관** 잡모아, 함께일하는재단, 월드비전

코멘토 「드림버스컴퍼니」

- ➔ **직무** IT, 마케팅, 인사, R&D 등
- ➔ **주요내용**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간·공간적 유연한 일경험 제공, 니트 청년 특화트랙 운영
- ➔ **기간** '25.5~12월 중
- ➔ **인원** 500명

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 ➔ **직무** IT
- ➔ **주요내용** 지역 거점대학 재학생(비전공자 포함) 대상 IT 분야 주니어 개발자 양성
- ➔ **기간** '25.6~11월 중
- ➔ **인원** 120명

산업안전상생재단 「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프로젝트」

- ➔ **직무** 산업안전보건
- ➔ **주요내용** 산업안전분야 잡코칭, 사례기반 학습 및 직무 멘토링 제공
- ➔ **기간** '25.4~6월(1차), 9~11월(2차)
- ➔ **인원** 96명
- ➔ **공동 운영기관** 현대자동차